해남군 거래 활성화 빈집 살아난다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소유자 정보 동의서 수시 접수 이달까지 참여 공인중개사 모집

해남군이 투명한 빈집 정보 공개와 공인중개사 연계로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는 '농촌빈집은행 활 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자체가 확보한 빈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 고,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빈집 매물 등록 및 거래 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은 국비 750만원을 확보, 빈집 정보 공개 및 거래 지원, 중개사 활동비 지급 등 사업을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군은 빈집 소유자의 정보 공개 동의서를 수 시로 접수 중이며, 문자 및 우편으로 안내를 진행 하고 있다. 동의서는 온라인 전자서명,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빈집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군 농촌개발추 진단 농촌공간개발팀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 면 된다.

빈집 정보공개에 동의한 주택은 등기부등본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1:1 공인중개사 매칭을 통 해 매물로 등록되고 거래가 추진된다.

등기부등본이 없어 거래 연계가 어려운 빈집에 대해서도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기본 정보를 게시 해, 빈집 정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13일부터 31일까지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하며, 모집 대상은 해남군 소재의 최근 1년 이 내에 거래실적이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는 빈집 등록과 빈집 매물 화 및 거래 관리 역할을 맡게 되며. 빈집 1호당 최 대 50만원, 총 250만원까지 활동비가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해 남군 농촌개발추진단 농촌공간개발팀으로 문의하 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빈집은 방치가 아닌 기회"라 며, "소유자와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 유치 총력

위원회 출범 전방위적 활동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신안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출 범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미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제도정비, 주 민공감대 형성, 통합플랫폼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대 응하며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군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시범사 업에 대해 설문조사(긍정 94%)를 한 데 이어 지역사

랑상품권 사용처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사업계획 측면에서는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 금, 바람연금)를 기본소득 체계와 연계해 소득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세입 발굴에도 힘쓰며 지속가능한 재 정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복지·문화 서비스를 통합한 복지카드 플랫폼을 기본소득 체계로 확장해 군 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은 섬의 한 계를 기회로 바꾼 지역"이라면서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 만들기…출산통합지원센터 개소

출산 가정・영유아 맞춤형 복합공간

진도군이 출산 가정과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복 합공간인 '출산통합지원센터'가 최근 개소식을 갖 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출산통합지원센터는 ▲어린이 자동차 놀이시설 '도담도담 놀이터' ▲수유실 ▲맘앤아이 쉼터 ▲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임 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내 부모들 간에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소 통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육아문화 활성화를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출산 가정과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복합공간인 출산통합지원센터의 문을 열 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진

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무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기업 모집

무안군이 구직자와 기업의 실질적인 만남을 지 원하기 위한 '2025년 무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 집한다.

이번 행사는 11월 7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글로컬스타트업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며, '비 상(飛上)하는 일자리'를 주제로 무안군이 주최하 고 전남인력개발원이 주관한다.

군은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 구인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 면접 중심의 원스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당일 행사장에는 현장 채용관 15개 기업(간접 참여 15개 포함)이 참여하며, 취업컨설팅, 입사지 원서 작성 지원, 진로·취업 상담, 이력서 사진 촬 영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공 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남인력개발원 또는 군청 미래성장과(일자리팀)에 방문·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구직자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이력 서 등 서류를 지참해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행사가 인력난 해소와 청년·중장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 린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11월 7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서 개최

어르신 등 취약계층 빨래 봉사

완도군이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고향사랑기 금 공모'에 소안면 공동 빨래방 조성사업이 선정 됐다.

소안면 빨래방은 부녀회 사무실에 대형세탁기 와 건조기 등을 설치해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완도군 소안도 빨래방 고향사랑기금 사업 선정

완도군은 빨래방을 반찬 봉사, 안부 살피기 등 과 연계해 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

대상으로 이불 등 대형 세탁물 봉사 서비스를 제공

특히 소안면 부녀회와 협의를 거쳐 세탁물 방문 수거, 세탁·건조,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마을 공동 빨래방은 전남도와 시군 공동협력 고 향사랑기금 사업이다. 청산면과 노화읍에 이어 소 안면이 세 번째 선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마을 공동 빨래방은 단순한 생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세탁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모델이 다"라며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폐의약품 수거함 23개 행정센터 확대

목포시가 가정에 방치된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관할 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치했다.

폐의약품은 가정에서 복용하다 남은 약, 유효기 간이 지난 의약품, 변질·부패된 약품 등을 말한다. 이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약 성분이 토양과 하천으로 유입돼 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분리 배출이 필수다.

이번 수거함 확대 조치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목포시는 보건(지)소 2곳, 약국 117곳, 행정복지센터 23곳 등 총 142곳 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 출은 시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 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월출산국립공원 산성대 구간 탐방 예약제 운영

하루 230명…미달땐 현장접수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가 산성대 구간 탐방로에

예약제를 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탐

방문화 정착을 위해 산성대 입구에서 광암터삼거 리까지 이어지는 탐방로에 대해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영암군청의 택지개발 공사로 기존 입구가 통제되면서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시작하는

우회 탐방로(기찬묏길 1구간)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총 길이는 기존 2.6km에서 0.3km 늘어난 2.9km가 된다. 탐방로 이용을 원할 경우 국립공원 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하루 230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정원 미달 시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백충열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보다 안전하게 탐 방하기 위해 탐방예약제를 시행하였으니 많은 협 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스: 062-222-0195









코미디 영화의 성공학 '한국영화, 웃겨야 산다'

복합문화공간, 도시의 미래가 되다②

청주 문화제조창

문 닫은 담배 공장 문화·예술 거점으로



호남의 누정시즌2 ④-장성 관수정 청백리 송흠이 지은 정자 맑은 물에 마음 씻어 성찰

조인호의 키워드로 읽는 광주 전남 미술사④ 선비화가들 시대정신

양팽손·윤두서의 회화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⑬ 그림 그려 무좀 설명한 지석철 이탈리아 약사 "유레카!"